

[이대통령 회견]

광주·전남지역 각계 반응

“민의 수렴 못해... 촛불집회 계속”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광우병위협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 회견에 대해 “민의를 수렴하지 못했다”며 촛불집회 계속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촛불집회는 예정대로 계속될 것이다. 20일 금남로 촛불문화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전반에 대한 광주시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21일에는 6·10 항쟁 촛불문화제에 버금가는 대규모 촛불문화제(정부

정책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10일 이후 촛불문화제 이후 시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촛불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20일에는 무등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인파가 대거 몰리는 지역으로 직접 가 촛불문화제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참여연대에서 이 대통령 담화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거지와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협회의는 “100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 대통령의 회견을 엄중 규탄하며 21일 제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평화적 비상국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전 있었다”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밤(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4차협상을 마치고 USTR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진정성 느껴지는 회견”

민주 “반성 결맞는 대책을”

정치권 엇갈린 평가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고, 민주노동당은 ‘국민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나라당=조운선 대변인은 이날 “지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회견”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이어질 쇠고기 후속 대책과 청와대 내각 인선을 거치면서 민심이 수습되고 명실상부한 새 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처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반성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성의 수위에 걸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김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떠한 내용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었다”면서 “일명평판하지 말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끝내 재협상을 거부했다”고 규정한 뒤 “통상마찰, 한미FTA, 경제살리기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사·도민 “사후약방문... 변명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광주·전남 사·도민들은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추가협상 약속 등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주부 열희영(33·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이번 기자회견이 사과를 할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열씨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종교계 일부 인사만 만나고 기자회견을 반복하니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생 체재미(여·23·신문방송학과 3년)씨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게 30개월 미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시를 부류하고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경제계 “일단 환영... 경제 살리기 매진”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특별 기자회견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세신지와 결단을 밝힌 만큼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경영자총

협회도 “대통령의 회견은 통상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본다”며 “이제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 경총은 이를 위해 “정부는 법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계도 국정세신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Summer Vacation Basic Problem Solving Class'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대특강)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aeyoung Education Center.

Advertisement for 'All-Korean' (전공국어) classes, highlighting '7th 5th' (개강 7월 5일) and listing various subjects like English and Korean.

Advertisement for 'Immersion Young Education Course' (임매션 유아교육과정) with details on course content and enrollment.

Advertisement for 'Lankor' (랑코어) featuring 'Public Personnel Exam' (공인중개사) and 'Real Estate Management' (주택관리사) courses.

Advertisement for 'Nongshon' (농산물) featuring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농산물품질관리사) exam and training.

Advertisement for 'MDG' (MDG) featuring 'Public Personnel Exam' (공인중개사) and 'Administrative Exam' (행정고시학원) courses.

Advertisement for 'MDG' (MDG) featuring 'Public Personnel Exam' (공인중개사) and 'Administrative Exam' (행정고시학원) courses.